

2024. 3. 26.(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02-2133-5005

쪽수 : 8쪽

양성평등문화팀장

최정열

02-2133-5035

## "저출생 해결의 열쇠는 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나선다

- 오세훈 시장, 정운찬 한반도미래연구원 이사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
- '26년 국내기업 ESG 정보공시 의무화 맞춰 ESG 경영에 '저출생 극복 노력' 포함 추진
- 과학적·객관적 평가 툴 '인구대응 K-ESG 지표' 활용해 양육친화 우수기업 발굴 및 홍보
-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 어려운 중소기업 참여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 '24. 5월 시행

- 최근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하는 한 기업의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이 화제가 되면서 출산·양육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업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에 나선다.
- 저출생 문제가 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에서 출산·양육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CEO의 의지에 좌우되기 쉽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지녀야 하며, 다른 기업에게도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오세훈 시장은 25일(월) 14시 서울시청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정운찬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국내 최대 회원사를 보유한 경제협력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 서울시는 ‘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에 ‘저출생 극복 노력’도 포함시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기존 글로벌 ESG 평가지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한국의 저출생 실태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인 가칭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 도입을 추진한다.
-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발한 것으로, 큰 틀에서 ▲출산·양육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등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세부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주요 지표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운영, 유연한 근태제도 운영, 임직원 육아지원제도 운영,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다.

○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포함해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서 도출했으며, 중요도가 높은 지표에는 가중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를 적용해서 우수한 양육친화기업을 발굴해 포상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우수 기업 발굴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고려하고, 예산과 인력 등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어려움이 존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ESG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 어려운 중소기업 참여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24. 5월 시행

□ 한편, 서울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양육친화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 출산·양육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가칭)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런 기업에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출산·양육친화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내용이다. ’24. 5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현재 사전 준비 중이다.
  
-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정부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저출산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저출생 극복의 첫 단추로 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 조성을 위해 이제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결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기업과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붙임 : 1.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 주요 지표  
2. 서울특별시-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업무협약 개요  
3. 업무협약서(안)

대분류	중분류	번호	지표명
출산/양육 지원	출산 단계 지원	1	여성 임직원 출산휴가 제도 운영
		2	임산부 근로보호 제도 운영
	양육단계 지원	3	여성 임직원 육아휴직 제도 운영
		4	임직원 육아지원 제도 운영
		5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배우자 지원	6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운영
		7	남성 임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 운영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탄력적 근태 관리	8	유연한 근태제도 운영
	임직원 삶 지원	9	임직원의 삶 및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 보유
		10	임직원 건강지원제도 운영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출산/육아 중 고용보장	11	임산부 차별금지 정책 보유
		12	정규직 비율
		13	1인 평균 근속연수
		14	(출산/육아휴직 이용 후) 복귀 후 근무 지원 제도 운영
	직장 내 차별 금지	15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 운영
	임직원 고충 해결	16	임직원 인권보호 정책 보유

**행사개요**

- 일 시 : '24. 3. 25.(월) 14:10 ~ 14: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 참 석 ※ 사회 : 양성평등담당관
  - 서울특별시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수 정책특보,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 정운찬 이사장, 이인실 원장, 윤상환 부원장
- 주요내용 :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 활용, 기업의 양육친화 확산 협력방안 구축

**주요 협력내용**

-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를 활용한 아이 키우기 좋은 우수 기업 발굴
- 아이 키우기 좋은 우수기업 시상 및 홍보
-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 지원(컨설팅 등)
-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 공론화(토론회) 및 정부 평가 지표에 포함 추진
-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캠페인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10~14:12(2')	개회 및 내빈소개	양성평등담당관
14:12~14:15(3')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보고	양성평등담당관
14:15~14:20(5')	인사말씀	서울시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14:20~14:25(5')	협약서 서명·교환	서울시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14:25~14:30(5')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 서울특별시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은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미연이 상호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본 협약의 당사자는 한미연이 개발한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를 활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며, 이를 위한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협력내용)** 서울시와 한미연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1.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를 활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우수기업 발굴
2. 아이 키우기 좋은 우수기업 시상 및 홍보
3.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 지원(컨설팅 등)
4.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 공론화(토론회) 및 정부 평가 지표에 포함 추진
5.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캠페인

#### 제4조(유효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협약의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상호 협조 및 지원한다.

#### 제6조(비밀유지 의무)

- ① 각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본 항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된다.

제7조(기타사항)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중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각 1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

2024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이사장 정 윤 찬